

지 구 마 을

● 제 25 호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목적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 아래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육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함으로써, 만인의 복지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참스승 교육

- 사도교육의 실천
- 교육현장의 이해
- 전문교육의 심화

열린교육

- 교육의 실천화
- 교육의 개방화
- 특수교육의 활성화

지리교육전공

교육목표

- 자연·인문지리 현상의 지역성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
- 지리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유능한 지리교사를 양성

목 차

제 1장 . 지구마을 25호를 제작하며	5
지구마을 25호를 펴내며	6
잊을 수 없는 2018, 새로운 출발 2019	7
2019년 학우들과 정답고 돈독하게	9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10
2018, 2019년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11
2018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3
2018년도 편집부	14
지리교육과의 2018년	15
 제 2장 . 우리가 지교의 새내기다.	17
18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18
MT 소감문	24
 제 3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26
춘계 정기학술 답사기	27
경상남도 답사기	31
내륙지방 답사기	32
블라디보스톡 답사기	38

제 4장 . 최병두 교수님 기고 글	44
포용의 개념과 관계적 공간	44
 제 5장 . 지리 관련 핫 이슈	58
‘불의 고리’ 인도네시아 한밤중 쓰나미	59
‘관세폭탄’ vs ‘보복관세’ …G2 무역전쟁	61
 편집후기	63

제 1장 . 지구마을 25호를 제작하며

1. 지구마을 25호를 펴내며 - 편집부장 문홍엽
2. 잊을 수 없는 2018, 새로운 출발 2019 - 2018년 학회장 박세황
3. 2019년 학우들과 정답고 돈독하게 - 2019년 학회장 장한별
4.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5. 2018, 2019년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6. 2018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7. 2018년도 편집부
8. 지리교육과의 2018년

지리교육과의 2018년



지구마을 25호를 펴내며

편집부장 15학번 문홍엽

안녕하십니까? 지구마을 25호 편집부장을 맡게 된 15학번 문홍엽입니다. 우선, 25년이라는 세월동안 이어져온 전통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책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이야기를 싣는 책으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추억에, 또 누군가에게는 낯선 새로움에 길라잡이로 역할 할 것입니다. 작년한해 동안 재학생 학우 분들이 겪었던 경험과 느낌을 글로 담았기 때문에 신입생 학우 분들께서 학과 생활의 빠른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구마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함께함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더불어 많은 선후배 분들의 기고로 60페이지가 넘는 한편의 책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의미 있는 작은 순간이 ‘함께’ 한다면 그 함은 단순한 함 그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완성 역시 이러한 작은 순간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모든 학우 분들이 4년이라는 대학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마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우리 편집부원들과 선후배 분들에게 감사하며, 또, 과를 위해 흔쾌히 좋은 글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신 최병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2018, 새로운 출발 2019

- 2018학년도 제34대 새나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

18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3학번 박세황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제 34대 새나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3학번 박세황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공약사항을 만들며 학회장 선거 준비를 하던 제 작년 겨울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 학회장 또는 집부 선배님들, 동기들이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만 다녔다가, 이제는 제가 직접 학우들을 이끌어 주는 입장이 되어보니 사뭇 교수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 새나 학생회가 이끌어주면 학우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따라와 주셨고, 정말 큰 사고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학우여러분들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학회장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도와주신 교수님들께도 이 지구마을을 빌어서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도, 저의 투정까지 다 받아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학과장 오정준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병두 교수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범대 과 사무실 앞의 3층 복도에 지리교육과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교수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참 씁쓸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주 열정적인 수업으로 저희를 빠져들게 했던 임석희 교수님, 항상 저희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던 이영아 교수님, 마지막으로 편안한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손명원 교수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달려준 우리 새나 학생회 집행부원들... 제가 많이 못나서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정말 고생 많았고 끝까지 낙오자 없이 버텨줘서 진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새나 학생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지주 선경이, 내가 무슨 고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들어주고 아낌없이 충고해주던 우리 동기들 영범이, 희범이, 민환이, 어쩌면 이렇게 셋이 있어서 저도 무사히

학회장 마무리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겉으로 내색 않고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휘, 우리 학생회가 항상 즐겁게 웃을 수 있게 노력해준 분위기 메이커 진우, 성실함 빼면 시체로 항상

우리들을 올바르게 잡아 준 석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참아준 기특한 윤정이,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를 떠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2018년은 저에게 있어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지만 2019년은 다시 새로운 출발이 되려고 합니다. 지리교육과 학우여러분들도 2019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꼭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황금돼지의 해 모두 대박 나시고, 풍요로운 한 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리교육과 학우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우들이 아름답게, 꿈을 자유롭게!!!

2019년 학우들과 정답고 돈독하게

-2019학년도 제 35대 지리교육과 학생회-

19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7학번 장한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9학년도 관포지교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7학번 장한별입니다. 2019년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불안정한 조직으로 시작하였지만 개강총회 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표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입학하여 처음해보는 대학생살이 어색하고 어리숙했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에는 답사준비위원회 홍보부장 직을 맡고, 2019년에는 학생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과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있어 선배, 동기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고 학과생활, 대학생살이를 잘 헤쳐 나왔기에 저 또한 19학번 신입생 학우들이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줄 테니 언제든지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말씀해주시면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35대 지리교육과 학생회는 관포지교 지리교육과로 시작을 알리려고 합니다. ‘관포지교’란 사자성어 의미 그대로 서로 이해하고 믿고 정답게 지내는 깊은 우정,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우들과 정답고 화목하게 지내고 고민을 들어주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처음부터 고생 많이 해주신 부학회장 이선경 학우를 비롯한 학생회라는 힘 들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였을 때 흔쾌히 같이 해주겠다고 해주신 관포지교 학생회 여러분께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한 작년 제34대 새나 지리교육과 학생회 임원 분들, 답사 준비 위원회 임원 분들, 지구마을 편집부 임원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관포지교 지리교육과 학생회 또한 학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1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지리교육과 교수진 소개



최병두 교수님

최종학력 : (영) UNIV. OF LEEDS 문학박사 (사회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인문지리학, 경제지리, 사회지리, 정치지리
관심분야 : 사회지리학, 경제, 정치지리학, 환경지리학 전공
경력 :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손명원 교수님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지형학 전공)
담당과목 : 자연지리학, 기후학, 자연지리조사법, 토양 및 생물지
 리, 자연지리교육론
관심분야 : 자연지리 전공(지형학) 습지 · 하천 생태
경력 : 대한 지리학회 이사, 한국지형학회 이사



임석회 교수님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인문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한국지리, 도시지리, 인구지리, 인문지리교육론,
 지역개발론
관심분야 : 도시지리학 전공
경력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역임



오정준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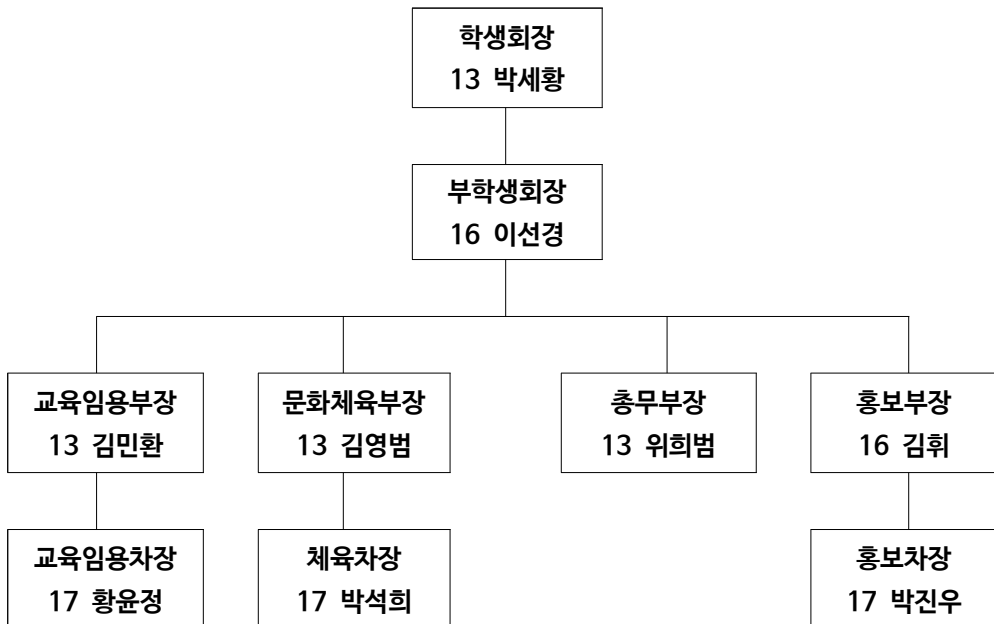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지리교육 전공)
담당과목 : 지리학입문, 문화지리, 관광지리, 지리교육론, 지리교
 재 연구 및 지도법
관심분야 : 지리교육학, 관광 지리학 전공
경력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편집부장, 대한 지리학회 홍보이
 사



이명아 교수님

최종학력 : (영) UNIV. OF BRISTOL 철학박사 (사회정책학 전공)
담당과목 : 사회지리, 세계지리, 지도학과 GIS, 인문지리조사법
관심분야 : 인문지리 전공/ 사회지리, 도시재생
경력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도 집행부



2019년 집행부 소개 및 포부

▶ 부학생회장 16 이선경

학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포지교학생회의 부학회장을 맡게 된 16학번 이선경입니다~ 과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총무부장 14 김정수

안녕하세요! 14학번 총무부장 김정수입니다. 학회비 깨끗하게 사용할게요^^**

▶ 총무차장 18 김혜빈

안녕하세요! 18학번 총무차장 김혜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육임용부장 16 박건태

안녕하세요! 16학번 교육임용부장 박건태입니다. 19년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교육임용차장 18 김세빈

안녕하세요! 18학번 교육임용차장 김세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부장 18 김민수

안녕하세요! 18학번 문화체육부장 김민수입니다. 19학년도 체육대회 우승은 지교가 합니다!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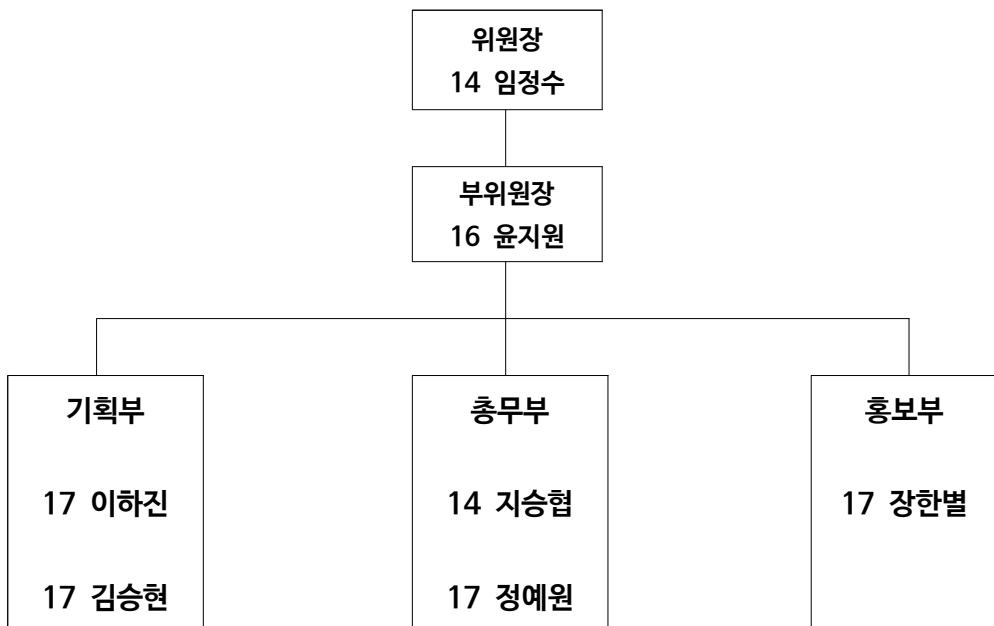
▶ 홍보부장 17 박진우

안녕하세요! 17학번 홍보부장 박진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지교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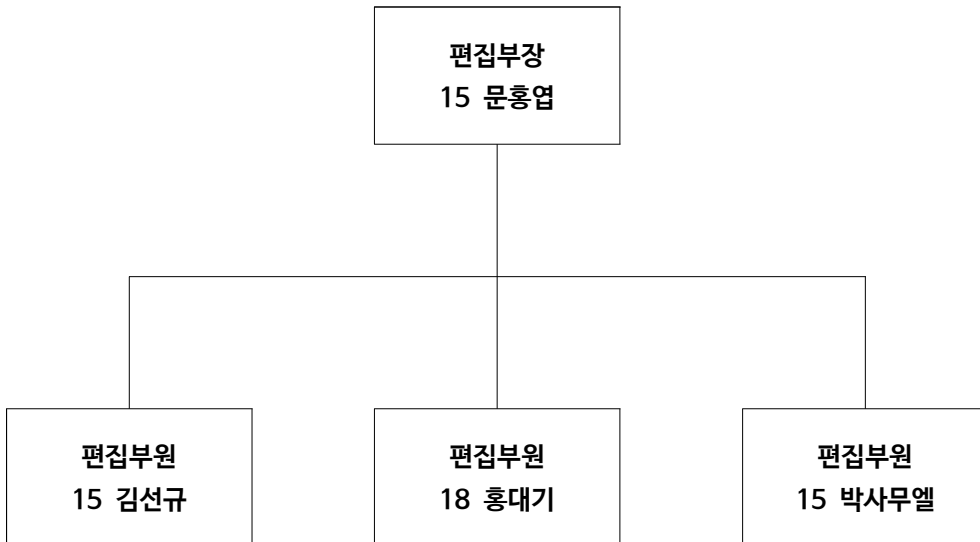
▶ 홍보차장 18 심혜지

안녕하세요! 18학번 홍보차장 심혜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



2018년도 편집부



지리교육과의 2018년

	졸업식 2월 23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리교육과 식구들이 모여 졸업하는 선배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입학식 2월 26일 18학번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페스티벌 새로 입학한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 3월 23일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입학환영하고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 M.T 4월 6일 ~ 7일 경남으로(창녕 및 함안) 종합 M.T를 다녀왔습니다. 지리교육과 학우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자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범대학 출범식 4월 9일 사범대학 출범식 행사에 참여하여 새로이 선보이는 사범대학 학생회장들의 포부를 보았습니다.	



춘계 정기학술 답사

6월 4일 ~ 6일 총 2박 3일에 걸쳐서 강원도 일대로 춘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지에서 열심히 보고 느끼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 동 제

5월 30 ~ 6월 1일 대구대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과도 주막을 열어 선후배가 모여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추계 정기학술 답사

각 학년 별로 1학년 경상남도 일대, 2학년 전북, 충남일대 3학년 블라디보스톡으로 추계 학술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졸업생 페스티벌

12월 5일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8 춘계 정기학술 답사

제 2장 . 우리가 지교의 새내기다.

1. 18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2. M.T 소감문 - 18학번 남현모



18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강수진	고향 : 춘천 출신 고등학교 : 유봉여자고등학교 생일 : 1999년 10월 9일 내 최애는 아이유와 에이핑크. 하지만 나와 180도 다른 장르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어울려다님(예를 들어 김시은 김시은 김시은 추주희 술 싫어해서 술자리 안 나감 카톡도 잘 안봄 잠자는 춘천의 공주 김시은은 나 없으면 못살음 하고싶은게 많은, 꿈이 가득한 스물한 살
 권민혜	고향 : 구미 출신 고등학교 : 형곡고등학교 생일 : 1999년 8월 30일 지교 알쓰 중 한 명. 소주를 아예 입에 대지 못하며 맥주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홍당무. 또한 내 집같이 편하게 드나드는 피시방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음. 김혜빈과 더불어 민혜빈이라고 불림
 김민수	고향 : 진주 출신 고등학교 : 대아고등학교 생일 : 1999년 7월 23일 지교 예비 과탐으로써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바람직한 학생임. 거리낌 없이 다가오세요 아주 착합니다. 지교 금수저, 진주 땅부자로서 내리리에 지교 No.2 과방 운영중.

	고향 : 울산 출신 고등학교 : 학성여자고등학교 생일 : 1999년 5월 13일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날 딱히 잘 마시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간이 썩어가는 티가 짝짝 나지만 다들 나보고 잘 마신다 해서 의아한 soju lover ♥ 나랑 술 마셔줄 친구들이 하나 둘 썩 줄어들어서 슬픔 주사가 욕인거 같은데 입이 험한게 화나서 그런게 아니고 애정표현입니다 ,,
	고향 : 구미 출신 고등학교 : 금오고등학교 생일 : 1999년 11월 24일 지교 맘, 지날고 갑자기 수업하다가 뛰어나가면 똥이 마렵기 때문이니 오해 ㄴ ㄴ 자타공인 지교 린이라서 노래방 같이 안가주면 많이 섭섭해 하기 때문에 시험기간이라도 한번씩 같이 가줘야 화내지 않음. 술 잘먹는 척 하지만 금세 뺨음 ※ 술부심 개오짐 주의 ※ 특) 공항도둑 성대모사 개잘함 지교 공식 레드벨벳 조이(?) 지교 맘한테 잘못 걸리면 이상한데 합성해음 (사진참조)
	고향 : 거창 출신 고등학교 : 거창중앙고등학교 생일 : 2000년 1월 28일 야구를 좋아하는 평범하고 착한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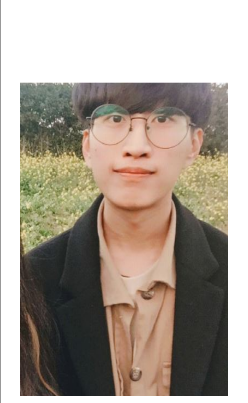
 김혜빈	고향 : 경주 출신 고등학교 : 선덕여자고등학교 생일 : 1999년 10월 7일 지교의 호빵우먼을 담당하고 있다. 배고픈 지교에게 뽕뽕한 불을 나눠준다. 피방에 자주 출몰한다. 권민혜와 더불어 민혜빈이라고 불림
 남현모	고향 : 영천 출신 고등학교 : 영동고등학교 생일 : 1999년 3월 15일 학교 생활을 열심히(?) 매우 착하고 인성갑이다. 술과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이며 술 없이는 잠을 못잔다. 지교 봉봉이 역할을 맡고있음. ♥애칭:라면모♥
 심혜지	고향 : 울산 출신 고등학교 : 화암고등학교 생일 : 1999년 4월 15일 겉쫑한 욕을 입에 달고 살 것 같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입에 욕도 담지 못하는 매우 여리고 순수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며, 친한 사람도 못알아보고 지나칠 수 있는 시력 보유중! 꽃은 오른쪽입니다.
 윤여진	고향 : 서울 출신 고등학교 :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생일 : 1999년 6월 18일 프로통학러 기숙사 인성면접에서 안타깝게 떨어져 급하게 자취방을 찾는중.

	고향 : 구미 출신 고등학교 : 경북외고 생일 : 2000년 1월 1일 (뽕뽕이) 잔다. 또 (처)잔다. 매일 잔다. 수업시간 항상 맨 앞자리에 앉지만 역시나 상하좌우 목돌리기를 하며 자고 만다. 이러한 수면부족의 원인은 매일 밤 음주로 인한 만취 때문이라고 한다. 순둥하고 참한 첫인상을 깨버린 그(녀)는 동기들에게 향긋한 가스과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하루도 님(~♡)을 만나러 길을 나선다. 2학년 때부터 달라진다는 그(녀).. 과연 새사람이 될수있을까?.. Ps.그녀는 송혜교,김태리,남지현,김유정,조이,제니,이세영,고아라의 축소판이라 불린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광대에 반사 되서 눈이 아플 수 있으니 주의 요망※ 유행어: 허 ㅋ
이예림 (광대요정)	

	고향 : 태안 출신 고등학교 : 태안고등학교 생일 : 2000년 1월 19일 낮을 많이 가려서 먼저 말을 잘 안 거는 편이지만 그래도 말 걸면 무슨 말이든 반응 잘 해주고 말 걸어주면 좋아함 웃는 거 좋아하고 머기 피셜 지교 피꼬리 . . . ♥애칭: 레몬이 / 포켓몬♥
이예몬	

	고향 : 평택 출신 고등학교 : 한광고등학교 생일 : 1999년 4월 1일 (만우절) 낮가림이 있지만 인사하면 밝은 미소로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ㅠㅠ 친해져요 우리~!
임상진	

 장재원	고향 : 울산 출신 고등학교 : 효정고등학교 생일 : 1999년 1월 18일 과에서 옷 검게 입고 다님. 지교 18 대표 알파벳 콜렉터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음.
 정수진	고향 : 밀양 출신 고등학교 : 밀양여자고등학교 생일 : 1999년 8월 13일 그녀는 지교 또라이, 지교 막례, 지교 정여사 등 지교에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다. 매일 "겨수니임~ 너무 힘들어여~ 이제 그마안~>" 등과 같은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애교로 손교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그녀는 에이쁠을 쟁취하기 위해 영환님과 오늘도 과실을 간다. 하지만 막례유튜브를 본다는건 비밀-☆ 유행어: 거의 뭐~ / 말이가 빵구가?!
 최윤환	고향 : 머구 출신 고등학교 : 킹갓엠펜러 협성대 제국고 생일 : 1999년 2월 4일 맥주 11캔을 마시고 술탱크라는 별명이 생겨버림 걸음이 정말 느려서 친구들의 속을 터트려줌 밥 먹는 속도가 빛의 속도임 같이 먹다보면 놀랄 거임 음음
 최호근	고향 : 대구 출신 고등학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고등학교 생일 : 1999년 5월 12일 ♫100% 친-절 18학번 □부담□ NO *누구나* 연/락 가솜능 □밥-□술 잘사주는 선배 #친절 ♡♡♡ 재밌는 대학생활 보장□ 즉시이동 http://root_of_sky

 추주희	고향 : 울산 출신 고등학교 : 화암고등학교 생일 : 1999년 11월 10일 청각이 좋지 못해 말을 잘 못 알아먹어서 친구 복장 터지게 하기 전문이며, 억양이 세서 말을 할 때 화내는 것 같지만 기분이 매우 좋은 경우가 다반사. 식후땀은 무조건 초코우유며 초코우유임 참고바람
 허유경	고향 : 김천 출신 고등학교 : 현풍고등학교 생일 : 1999년 9월 23일 먹는 거 세상에서 가장 좋아함. 지리교육과인데 고등학교에서 지리 과목 공부 한 적이 없음.. 제가 아는 선에서 꿀교양 전공 관련 알려드립니다! 지나가다 발견하면 주저 없이 물어 주세요 :)
 홍대기	고향 : 안산 출신 고등학교 : 광덕고등학교 생일 : 2000년 1월 25일 (뽕뽕이) '수업이 장난이야!' 명언 임교수님으로부터 만들어냄 . 강인한 체력으로 답사 때 술 마시다가 다음날 장시간 버스 탑승으로 교수님 앞에서 구토, 그 뒤로 술 안 먹겠다고 선언했지만 답사 다녀온 기념으로 바로 술자리를 가는 애주가. 지교 갑존똥 갑설존을 맡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지교 18인성은 홍대기 반가운 친구들에겐 '부리부리~~히사시부리!!' 를 시전함 당황하지 말고 잘 맞춰줘 :) ★지교 살림★ ★지교 장범준★ ♥애크:머기♥

- MT 소감문 -

18학번 남현모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대한 여러 기대들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엠티였다. 3월 개강 후 신입생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서 여러 선배들을 만나고 알게 되며 선배들에게 들은 엠티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과에서는 지리교육과라는 이름답게 춘계학술답사라는 명칭이 있었고 지리교육과의 꽃은 답사이기에 더욱 기대를 하였다.

4월 6일 엠티 당일이 되었고 모두 사범대학교 주차장에 모였고 우리들은 먼저 우포늪으로 출발 하였다. 우포늪에 도착하여 교수님들과 함께 전망대로 출발하였다. 15분정도 걷다보니 전망대에 도착하였고 전망대에서 보이는 우포늪의 경관은 우포늪이 왜 람사르에서 선정한 습지인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전망대에서 손명원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습지와 우포늪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우포늪에서 숙소인 함안으로 출발하였고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답사 전 각 조에서 장을 봐온 음식들로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였다. 각 조원들끼리 모여 고기를 구워먹었고 조에 상관없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저녁식사를 마쳤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 모두 강당에 모여 집부 선배들이 준비해온 여러 조별 게임들을 하였다. 지리교육과답게 지리 퀴즈도 하였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준비한 게임이 모두 끝난 후 조에 상관없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떠들며 신나게 놀았다.

답사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지리에 대한 지식과 답사에 대한 지식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며 선배, 동기들과도 많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어 만족스러운 첫 엠티가 되어 정말 좋았다. 엠티를 답사와 겸하며 그저 놀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2018년도 종합 MT 단체사진 】

제 3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1. 춘계 정기학술 답사기 - 14학번 임정수
2. 경상남도 답사기 - 16학번 문현성
3. 내륙지방 답사기 - 15학번 박사무엘
4. 블라디보스톡 답사기 - 16학번 윤지원

춘계 정기학술 답사기

14학번 임정수

1. 동해안 답사기

- 답사란?

답사란 무엇이며 답사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리교육과에 진학했고 지리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 흔히 답사는 ‘지리학의 꽃’이라 불리며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를 중요시 여기고 지리와 답사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우리는 답사를 통해 훗날 지리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지리를 가르칠 때 ‘그곳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구대 지리교육과 학생들도 지리를 전공하며 책 속에 있는 혹은 이제까지 배웠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강원도 일대로 전 학년이 답사를 다녀왔다. 나는 이 정기 현장견학 학술답사를 준비하는 답사준비 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12월부터 답사를 총 계획하고 준비했다. 준비하는 과정은 많이 힘들었다.

- 답사준비

나는 지리교육과에 재학하며 춘계 정기 학술답사를 총 3번 다녀왔다. 그 중 2번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답사가 되기 위해 답사지역을 정하고 답사일정을 총 계획하는 답사준비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했으며, 총 3번의 답사 모두 느꼈던 것이나 경험한 것이 달랐다. 그 중 이번 2018년도에 다녀온 강원도 일대 답사는 답사준비 위원회 위원장으로 답사에 대한 총 책임과 모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그 무게는 상당히 무거웠고 버거워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껏 다녀온 답사 중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답사였다.

2017년 12월부터 위원장으로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2018년 1학기에 있을 전 학년이 참석하는 종합답사를 준비하기 위해 답사지역을 선정하고 루트와 일정을 짜는 일이었다. 답사지역을 선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 답사지역으로 적절인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답사할 수 있는가. 인문적 자연적 요소가 적절하게 섞여있는가 등 유익하고 다양한 답사를 계획하기 위해 여러 번 교수님들과 상담하고 고민했다.

답사 테마를 ‘같음’과 ‘다름’의 지리학으로 선정하고 답사지역을 정하여 본 답사에 앞서 답사지역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2018년 2월 답사준비 위원회 일원들과 예비답사를 다녀왔다.

2. 답사지

- 추암 촛대바위

답사를 준비하며 2017년 겨울부터 열심히 달려왔고 머릿속은 항상 답사준비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답사준비 위원회 동기, 후배들과 학생들이 머물 장소, 답사일 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경험해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답사가 될 수 있게끔 예비답사를 다녀왔다. 아직은 서먹서먹한 후배들과 다녀온 예비답사의 첫 일정이 추암 촛대바위였고, 전 학년이 참석한 답사 일정의 마지막이 추암 촛대바위였다. 답사준비의 시작과 끝을 추암 촛대바위와 함께했고 처음과 끝의 느낌이 너무 생생해 애정이 많이 남는 곳이다. 이제 나에게 있어 촛대바위라는 장소는 ‘긴장’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추암 촛대바위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해식애가 후퇴하면서 침식에 강한 부분이 남아 형성된 시 스택 지형이다. 지리에 관심이 많거나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다. 시 스택은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서해, 남해에 비해 파랑의 힘이 세고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 웅기한 지형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촛대바위는 애국가 첫 화면에 등장하는 일출 장소로 유명하다. 미디어를 통해 추암 촛대바위는 일출명소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소비하기위해 방문한다. 일출 명승 1호로 지정되었고 사람들은 추암 촛대바위에서 애국가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하게 일출 사진을 찍는다.

- 단구(하안단구, 해안단구)

1일차 단양군 영춘 하안단구는 첫 번째 답사지였다. 이곳은 단양IC를 빠져나와 굽이굽이 형성된 골짜기 사이의 감입곡류하천인 남한강길을 따라가다가 마주할 수 있었다. 도로 위에서 지나가면서 보게 된 영춘면 하안단구는 교과서에서 보던 전형적인 하안단구의 모습이었다. 지대가 비교적 높은 계단식의 형태라 취락과 교통로가 발달해있고 농경지로도 활용되고 있는 경관이 한눈에 보였다. 초기에 자유곡류하던 하천이 지반의 융기 또는 해수면의 하강으로 하천의 하방침식이 강해지면서 발달한 곳인 영춘 하안단구는 다리를 건너 단구면 위로 가보니 과거 하상이었던 흔적인 둥글둥글한 돌무더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태백일대와 함께 옥천지향사로 석회암지대가 나타나는 단양군답게 용식작용으로 산화된 석회암 풍화토인 붉은 토양(테라로사)과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움푹 패인 와지 형태의 돌리네를 볼 수 있었다.

3일차에 방문한 옥계해수욕장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보던 정동진에서 본 크루즈호텔이 위치한 해안단구면이 아닌 그 반대편인 옥계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정동진 해안단구를 관찰하였다. 정동진 해수욕장에 비해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평평한 단구면이 한눈에 들어왔다. 해안단구의 경우 과거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평한 파식대나 해안 퇴적으로 형성된 평평한 지형이 하안단구와 마찬가지로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변동으로 인해 드러난 지형이다.

답사 간 살펴본 해안단구와 하안단구는 모두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으로 인해 형성된 지역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바다에서 형성되는가, 강에서 형성되는가에 차이와 단구면이 파랑의 작용으로 형성된 평평한 지형이 드러난 것인지 하천력에 의해 형성된 평평한 지형이 드러난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 증거가 되는 단구면 상의 토양이나 모래, 자갈의 형태가 다를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곡류절단

1일차 두 번째 답사지인 청령포는 곡류절단의 모습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지형이었다. 우리는 청령포 건너편의 구하도 옆에 위치한 방절리 청령포 전망대에서 청령포와 지금은 일부 도로로 개발되고 저류지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 방절리 구하도, 미앤더핵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비록 경관이 일부 훼손되기는 했지만 이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미앤더핵은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곡류절단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곡류부의 바깥부분이 계속 깎아져 휘어들어가고 휘어진 강 중간에 미앤더가 형성된 뒤 곡류목 부근의 안쪽에서 측방침식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하도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진다. 지도상으로나 육안으로도 그 모습이 확실해서 저류지수변공원이 과거 구하도 부근이었고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낮은 구릉지가 미앤더 핵임을 한 눈에 관찰할 수 있었다.

2일차의 두 번째 답사지였던 두타연의 경우 군사지역이라서 출입통제가 엄격했다. 미리 작성한 기사님과 교수님을 포함한 102명의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명단을 제출하고 대표자 10명의 신분확인 후 위치추적기를 목에 걸고서야 군인 분들의 통제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다. 관찰할 수 있었던 부분은 곡류절단 간에 상류와 하류 간의 높이 차이로 인해 형성된 폭포였다. 또한 절단 이후에도 낙차로 인해 계속해서 침식이 되면서 움푹한 폭호가 형성된 것이 두타연이었다. 폭포 주변에서는 하천의 침식으로 형성된 포트홀도 관찰되어 인상 깊었다.

3. 마무리 지으며, 답사란.

나에게 이번 답사는 아쉬웠다. 이동거리가 많았고 예상보다 일정이 많이 꼬여 시간에 쫓겨 힘들었던 답사였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 우리가 아는 것, 책에서 본 것을 확인하려고만 떠난 ‘주마간산’식 답사가 되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답사는 ‘보는 경험’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직접 ‘보는 것’만이 아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오감을 이용한 답사가 되었다면 더욱 유익한 답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답사였다. 우리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혹은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답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답사 때는 ‘다녀왔고 보고 왔다’에서 더해 ‘체험하고 느꼈다’의 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 2018년도 춘계 정기 현장견학 학술답사 단체사진 】

경상남도 답사기

16학번 문현성

저희는 경남 진주에서 시작하여 사천, 고성, 통영, 거제, 김해에 이르기까지 짧지만 보람찬 답사를 다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답사를 떠나기 전 혼자 있는 복학생이라 그런지 '내가 따라가도 되려나, 뻔한 선상지, 성, 공룡 발자국 이런걸 봐서 뭐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답사를 간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답사지 중 기억에 남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첫번째로, 사천선상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선상지 부근에 버스를 타고 도착했고 보시다시피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하시는 설명을 차근차근 듣다 보니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게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사천 선상지를 보았을 때, 그냥 논, 산, 바다 이것이 제 눈에 들어오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난 후 다시 보았을 때는 내가 지금 선상지의 정상부인 선정에 서 있고 내려다보고 있는게 선상지 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상지의 규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교수님께서 답사는 여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제야 그 말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통영에서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본 다도해 리아스 해안이 있습니다. 처음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케이블카의 운행비용이 만천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에서 내리고 한산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을 한눈에 바라보았을 때, 아침 일찍부터 케이블카를 줄서서 타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경치에 쉽게 눈을 때지 못했고 들이마시는 공기마저 맑았습니다. 아는 섬이라고는 한산도 밖에 없어서 유심히 쳐다보다가 문득 이순신 장군님께서 어디서 학익진을 펼쳤을까 하고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 후배들과 함께 내려가는 케이블카에서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여자친구와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속도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김해에 삼각주인 이 곳은 그냥 생태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냥' 이라는 단어가 '잊을 수 없는' 이라는 말로 바뀌기 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과 저를 포함한 소수의 1학년들은 이 핑크몰리, 붉은 갈대로 불리는 이 곳을 보았을 때 우와라는 감탄사만을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저이지만 셔터를 눌러대기 바빴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고 아마 답사사진전에 올렸다면 1,2위를 다투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내륙지방 답사기

15학번 박사무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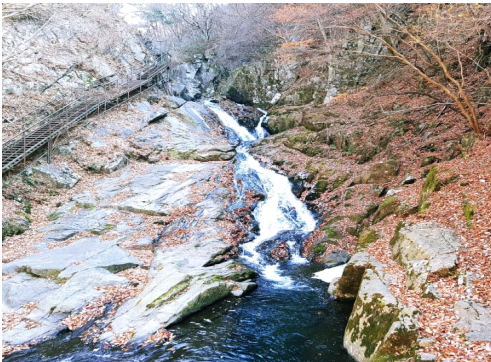
2018년도 2학년 답사는 이 전의 2학년 답사와는 다른 곳을 다녀왔습니다. 2학년 답사를 가기 전 이미 선배들과 2학년 답사를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로는 2학년 답사는 을릉도를 갔다왔고 어떤 순서와 어느 곳을 답사하게 되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직접 가서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많이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의 2학년 답사는 이 전과는 달리 내륙지방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륙지방의 지역들이 이 전에는 선택하지 않았던 지역이고 이번에 우리 학년이 답사를 어떻게 다녀오냐에 따라 이후의 2학년 답사에 방향과 영향을 끼치기에 이번 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도 처음 가보게 되는 지역이라서 이번 답사지에 대해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대구에서 출발하여 거창, 남원을 거쳐 무주를 지나 옥천까지 간 후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에 이르는 많은 지역의 명소들을 거쳐가는 2박 3일간은 짧지만 긴 일정이었다.

우리는 답사 첫째 날 학교를 떠나 경상남도로 그 출발을 시작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먼저 도착하게 된 곳은 거창의 가조분지이다. 가조분지는 대구에서 88고속도로를 타고 광주방향을 가다 거창군 가조면 가조 톨게이트를 통해 빠져나오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곳이다. 가조분지는 화강암이 관입한 지역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침식에 저항한 부분은 산지로 남고 중앙의 화강암은 쉽게 침식을 받아 분지의 바닥이 된 화강암 침식분지이다. 가조분지의 주변의 토지는 범람의 위험이 적은 하천을 끼고 발달되어 있고 선상지와 하안단구와 같은 지형이 발달 되어 있다. 우리가 이 곳에 내려 직접 살펴보니 규모가 굉장히 커서 우리가 내린 곳만으로 이 곳의 형태를 선상지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 곳이 선상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떠나 도착하게 된 곳은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 곳에서는 구룡계곡을 답사하게 되었다. 구룡계곡은 지리산 국립 공원 관리사무소 구룡분소가 있는 남원시 추천면 호경리에서부터 구룡폭포가 있는 덕치리까지 펼쳐지는 협곡으로, 곳곳에 기암절벽과 반석 그리고 소가 있어서 그 모습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 계곡에서 가장 주목되는 장소는 구룡폭포로 구룡폭포는 일반적으로 폭포처럼 가파른 절벽에서 급하게 낙하하는 폭포가 아닌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는 두 갈래의 폭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폭포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선조들은 폭포 아래 쪽에 형성된 작은 소에서 올라다보면 마치 용 두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여 교룡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들은 처음에는 구룡폭포를 보고 올라와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일정을 소화하려 했지만 구룡폭포의 모습을 보고 구룡계곡의 다른 모습을 어떠한 지 궁금하여져서 구룡계곡을 더욱 살펴보기 위해 구룡계곡을 관통할 수 있는 경로로 일정을 바꿔 구룡계곡의 주변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들은 원래의 일정보다 몸은 더 힘들고 더 긴 시간을 구룡계곡에서 보냈지만 구룡계곡의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랜만에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산에 오르니 몸도 상쾌했으며 왜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산과 계곡으로 유람을 다니며 요산요수라는 말을 하였는지 알 것 같기도 하였다.



▲ 구룡폭포



▲ 구룡계곡 탐방로

그리고 우리는 이후 첫째 날 밤을 보내기 위해 전라북도 남원에 도착했다. 우리의 숙소는 광한루 근처라서 우리는 저녁으로 남원에서 유명한 추어탕 집을 가서 비빔밥을 먹고 저녁 개인 자유시간에 광한루를 살펴보러 갔다. 원래 이 곳은 조선 세종 때 황희가 광통루라는 누각을 짓고 산수를 즐긴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다 1444년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이 곳을 거닐다 이 곳의 아름다운 경치가 과거 중국의 달나라의 미인 항아가 사는 월궁 속의 광한청허부라고 칭한 후 이 곳의 이름을 광한루라고 이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광한루원은 소설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인연을 맺은 장소로 유명하고 1920년대 경내에 춘향사를 건립하고 김은호 화백이 그린 춘향의 영정을 모셔 놓고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 춘향제가 열린다. 우리가 이 곳에 갔을 때는 밤이어서 그 경내의 모습을 자세히는 살피기 어려웠으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조명들이 이 곳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또한 이 곳에 대한 장소감은 많은 연인들이

이 곳을 찾아 서로가 이도령과 춘향이 되어 이 곳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연인들에게는 사랑의 공간이 되겠지만 연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소외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남원 광한루

둘째 날 남원을 떠나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무주의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였다. 안국사는 고려시대 충렬왕 때에 승려 월인이 창건하였고 그 뒤 조선 초에 이르러 무학대사가 절을 지었다고 한다. 곧이어 조선 태조 이성계가 국가의 만년 대계를 위해 무학에게 명하여 복지인 적상산에 성을 쌓고 절을 짓게 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온다. 우리가 이 곳을 답사하게 되었을 때는 이 절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절의 전체 모습을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높은 곳까지 산성과 절을 지었던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얼마나 많은 힘과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잠시 내려가면 적상 산성 내에 적상산사고가 있다. 사고란 고려와 조선시대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치했던 창고로 사각이라고도 불린다. 사고는 서울에 있는 사고를 내사고 지방에 있는 것을 외사고라 칭하며 적상산사고는 4개의 외사고 중 하나이다. 적상산에 사고가 들어서게 된 이유는 본래 북방에 위치한 묘향산사고가 후금의 위협뿐만 아닌 사고 관리의 소홀로 인해 소장 도서가 분실 및 훼손 가능성이 있어 다른 곳을 실록을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묘향산사고의 실록이 모두 이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 적상산 사고의 실록들은 병자호란 때 마니산사고의 실록이 산실되어 이를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할 때 근거로 사용하였다. 적상산사고의 설치가 미친 영향은 이 사고의 수호와 산성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승병을 모집하고 수호 사찰 등을 건립하는 등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특히 정묘호란 때에는 사고를 지킬 사람이 없어 승려 상훈이 사고의 서책을 성 밖의 석굴로 옮겨 보관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사고로 옮겨왔다.



▲ 적상산 사고

이후 적상산에서 내려와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 금산이었다. 금산은 예로부터 인삼이 유명한 곳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 있는 개삼터는 인삼 관련 관광지로서 유명하며 처음으로 인삼재배가 시작된 곳이라고 한다. 이 장소에는 특별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설화의 내용은 먼 옛날 한 효자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이야기인즉,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부친을 여의고 모친마저 병들어 자리에 눕자 진악산 관음굴에서 정성을 들여 모친의 쾌유를 빌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현몽하여 “관음봉 암벽에 가면 빨간 열매 3개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뿌리를 달여 드려라”는 계시가 있었다. 그곳을 찾아간 강처사는 과연 그러한 풀이 있어 뿌리를 캐어 모친께 달여 드리니 모친의 병환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후 강처사는 그 씨앗을 지금의 남이면 성곡리 개안이 마을에 심어 재배에 성공한다. 당시 강처사가 재배에 성공한 인삼은 사람 손으로 처음 재배가 된 것이라 개안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당시 그 씨앗은 3개가 달리고 뿌리의 모습이 사람의 형태와 비슷하다하여 “인삼”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설화를 따라 금산군은 매년 금산인삼축제 첫날을 기하여 개삼각에서 인삼을 처음 재배하게 해준 진악산 산신령께 감사하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인삼제전을 군민의 정성을 모아 올리고 있다고 한다.

2학년 답사의 여정의 마지막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서 마지막 날은 전 날들과는 달리 평소보다 일찍이 길을 나섰다. 우리가 마지막 날 아침부터 출발한 곳은 충청북도 옥천군의 부소담약이다. 부소담약은 기암절벽의 일종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부소무늬마을에 위치하여 있다. 부소담약은 길이가

700M에 달하는 긴 절벽으로 과거 조선시대 문인인 송시열 선생이 소금강이라 예찬한 추소팔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절경의 일부이다. 하지만 본래 부소담악은 처음부터 물가의 절벽이 아니었다. 원래는 산이었지만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산 일부가 물에 잠겨 물 위에 바위로 만든 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풍경이 되었다. 이러한 부소담악의 장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추소정이다. 추소정은 부소담악의 절벽위에 세워진 정자로 이전에는 포은 절벽 위였겠지만 지금은 물 사에 섬처럼 떠있는 징검다리 모양의 산각 위에 놓여있다. 추소정은 구 추소정과 추소정이 있는데 구 추소정은 댐 건설 이전 물에 잠기기 이전에 산각의 더 바깥 끝에 세워졌던 곳이고 이후 댐 건설로 인해 물이 잠기면서 이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지금의 신 추소정으로 옮겨졌다. 옛 선조들은 이 곳 추소정에 오르면 용이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형상이 보인다고 말을 하였고 추소정에 오르면 이 말을 묘사한 용 모양의 조형물도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이 곳을 방문했을 때 댐으로 인해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인해 물이 생각보다 더러웠던 것이 참으로 아쉬웠다.



▲ 부소담악



▲ 추소정의 용 조형물

이후 학교로 돌아가기 전 답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정지용 시인의 생가에 도착했다. 정지용 시인의 생가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에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1920년대 ~ 194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으로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로 한국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생가의 입구에 들어서면 정지용 시인의 대표 시인 향수가 생가의 문지기처럼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마주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은 정지용 시인의 대표시인 향수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으며 정지용 시인의 생가에 안으로 들어서면 부엌이 딸린 안채와 행랑채 등 2동의 ‘-’자형 초가집과 그 곳을 둘러싼 흙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정지용 시인의 생가의 주변으로는 정지용

시인의 동상 등으로 꾸민 작은 공원과 그 옆으로 정지용 시인의 문학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향수



▲ 정지용 생가

우리들은 이렇게 정지용 시인의 생가를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내륙지방 답사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답사가 아니면 가보기 힘든 곳들과 잘 알지 못했던 곳들을 다녀오고 이러한 곳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뜻 깊었으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자연의 모습들을 실제 자연 환경들에서 살펴보니 그 용어와 의미에 대해서 더욱 알기 쉬었고 머리로만 외우던 지식을 실제로 마주해서 보니 이해하기도 더욱 쉬었다. 개인적으로는 충청도나 전라도 쪽을 여행해보고 싶었지만 그 지역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 선뜻 가기 어려운 곳을 이번 답사를 통해서 다녀올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각 일정마다 지나오면서 시간이 없어 직접 내려 볼 수는 없었지만 잠깐씩 만난 절경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곳의 경치를 즐기고 옛 성현들이 왜 산과 물을 찾아서 떠났는지에 대해서 나도 그러한 심경을 느껴보고 싶었다.

분명히 이번의 답사지는 이 전에 답사지로 가본 적이 없이 올 해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어서 답사지에 대한 준비나 답사 일정의 경로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사에 일정마다 우리들이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손명원 교수님과 이 일정들을 계획하고 준비한 과대를 비롯한 학생회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블라디보스톡 답사기

16학번 윤지원

지리교육과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행사가 해외답사가 아닐까 싶다. 물론 나도 해외답사를 손꼽아 기다렸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답사인 만큼 답사지를 선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았다. 여러 번의 투표 끝에 블라디보스톡이 선정되었다. 이전까지는 동남아시아 위주로 답사를 갔었어서 블라디보스톡을 간다는 것이 신기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색다른 답사지인 만큼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다 같이 세계지리 책을 읽고, 교수님이 주신 프린트 물을 읽으면서 답사준비를 했다.

기다리던 10월 1일이 되었다. 아침 비행기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대구공항에 모였다. 출발 전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학교에서 첫 차를 타고 가도 늦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걱정을 했었다. 다행히 버스를 대절하게 되어서 다 같이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다.

비행시간은 2시간 반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새벽부터 바쁘게 준비해 나온 탓에 비행기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설레는 마음에 도착 1시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동시에 눈을 떠서 서로 한참을 웃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수속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있었다. 마음 속으로는 너무 신기했지만 신기하게 보는 시선이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선을 돌렸다. 사실 그 분들도 우리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았다. 입국심사를 하고 직원 분께 소심하게 ‘스바씨-바’하고 감사인사를 했는데 웃으며 같이 인사를 해주셨다. 서투른 인사에도 대응을 해주셔서 용기를 얻게 되어 그 이후로 2박3일 동안 간단한 인사를 러시아어로 서툴게 하고 다녔다. 짐을 찾고 가이드님을 만났고 우리의 2박 3일 답사의 첫 날을 시작했다.

공항을 나와 처음 마주한 블라디보스톡의 날씨는 좋았다. 가을이긴 해도 추운 날씨를 예상했었는데 공기는 싸늘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시장이었다. 이곳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으로 물가가 싼 편이었다. 해산물과 과일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었고 중국 시장답게 중국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있었다. 그 다음 토크렙스키 등대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 등대는 간조시간을 맞추어

가야 등대까지 가는 사주가 드러나 걸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곳은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기 때문에 공공 언 바다를 걸어갈 수 도 있다고 한다.

토카렙스키 등대까지 보고나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다. 솔직히 맛이 없어서 먹는 등 마는 등 했다. 중국시장을 둘러보면서 큰 빵을 사서 먹은 것이 다행이었다. 음식은 그닥 맛이 없었지만 식당이 블라디보스톡 항구 4층이어서 역과 항구를 구경하기 딱 좋았다. 항구에는 굉장히 큰 선박들이 많이 정박해 있었다.

식당에서부터 다음 목적지인 아르바트거리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아르바트거리는 블라디보스톡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카페나 상점가들이 분포해있는 곳이다. 아르바트거리의 건물들은 유럽풍의 건물들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아기자기 해서 너무 예뻐다. 여기서 30분의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친구들과 미리 알아본 카페로 가기로 했다. 우리가 간 카페는 디저트와 음료의 종류도 다양한 데다가 저렴하고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한국에서 커피 한 잔을 사먹는 가격으로 3잔 정도를 살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념품 샅을 가고는 싶었지만 거리가 이국적이고 너무 예뻐서 남은 시간을 건물 안에서 보내기 아깝다는 생각에 커피를 들고 괜히 블라디보스톡 사람들과 섞여서 길을 한 번 건너 보기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다시 버스로 이동해서 혁명광장으로 갔다. 블라디보스톡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떠올릴 만큼 이 곳의 유명한 장소이다. 이 곳은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모아놓았던 장소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넓은 광장을 보는데 먹먹해져왔다.

혁명광장에서 개선문, 영원의 불꽃, 태평양 함대 사령부 기념관을 보기 위해 걸어서 이동했다. 가깝기도 했지만 거리가 좁고 길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는 차들이 많아서 버스로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가는 내내 건물들의 경관이 눈에 띄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굉장히 좁게 붙어 있었다.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도 신기했다. 교수님께 여쭙보니 좁은 골목길은 비행의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틈을 줄인 것이 아닐까 하고 대답해주셨다.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 아르바트거리에서 본 골목이 벽에 알 수 없는 낙서들로 가득하고 낮이지만 건물 그늘로 어두컴컴해서 비행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또 신기했던 것이 건물들이 다 붙어있지만 각각 건물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답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이런 경관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답게 유럽양식의 건물들이 줄지어있는 모습이 아주 이국적이고 예뻐다. 마지막으로 빠끄롭스키 러시아 정교회에 갔다. 이 곳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큰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다. 내부로 들어가려면 여자는 스카프로 머리카락을 감춰야했다. 우리가 간 날이 마침 세레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문 앞까지 서 있을 만큼 많았고, 분위기도 아주 엄숙했다.

드디어 첫 날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라 하루에 많은 장소들을 가야했고, 새벽부터 일어나있어서 모두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저녁 메뉴로 러시아식 꼬치요리인 샤슬릭이 나와서 다들 조금 기운을 차린 것 같았다. 같이 나온 스프는 한국의 소고기 국 같은 느낌이었고 나눠준 빵을 찍어먹어도 맛이 있었다. 특히 한 잔 씩 나눠준 보드카가 샤슬릭과 잘 어울렸다. 한 잔을 더 시킬 뻔 했었다. 맛있었던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했다.

체크인을 하고 가이드님과 기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렸다. 이후에 우리들은 아쉬운 마음에 아르바트거리에 가보려고 했지만, 유심칩을 사지 않아서 택시 어플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겁 많은 우리는 결국 아르바트거리를 가지않았다. 대신 근처 마트에 가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숙소에서 교수님께서 중국 시장에서 사 주신 곰새우를 나누어 먹으면서 답사 첫 날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좋았다. 일정은 신한촌 기념비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한인들이 구한촌에서 쫓겨나 새롭게 거주하던 곳이었던 이곳은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이 후 신한촌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지금은 아파트와 학교로 변한 모습이었다. 기념비의 돌기둥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큰 3개의 돌기둥은 남북한과 제외동포를 상징, 주변 작은 8개의 돌기둥은 8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 신한촌 기념비에서 찍은 단체사진

우스리스크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제 갔었던 블라디보스톡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를 달리는 기차를 꼭 한 번 타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대가 되었다. 비록 1시간 정도로 짧은 거리를 타고 가는 것이었지만 기차 안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았던 것이 너무 좋았다. 그 와중에 따로 앉은 친구에게 러시아 분이 말을 걸어왔다. 친구는 내내 그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모습이 신기했고 흥미로웠다. 나도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발해성터에서 찍은 단체사진

기차에서 내려서는 다시 버스를 타고 발해성터로 향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정말 드넓은 평야가 있었다. 또 멀리에 우각호를 볼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가도 우각호가 있다는 정보가 없었는데 모두들 뜻밖의 우각호를 발견하고 놀랐다. 성터의 확실한 윤곽은 보기 힘들었지만 과거 우리나라 영토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장소였다.

다음으로 이상설 유허비로 이동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은 북간도에 서전서숙을 설립하는데 힘쓰기도 하였고, 1907년 이준,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인물이다. 이상설 유허비에 도착하고 사실 깜짝 놀랐다. 어릴 적부터 역사책에서 배우기도 하고 독립을 위해 많은 힘을 쓰신 유명한 인물의 유허비가 정말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과 시설도 없었다. 심지어는 낙서가 되어있기도 했었다는데 그 낙서도 러시아 현지 이름 모를 버스기사님이 지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유허비의 정면으로는 이상설 선생의 재가 뿌려졌다는 수이폰 강이 흐르고 있다. 수이폰 강의 유량이 증가하면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 유허비까지 잠긴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는 진흙이 많아서 질퍽질퍽했고 나뭇가지들이 꺾여 떨어져 있었다. 한국인들에게 의미있는 이런 장소가 많이 알려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독립운동가인 최재형 거주지와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연달아 방문했다. 이 두 곳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한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 수 있었고, 또 고려인들의 힘들었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최재형 생가는 미니 박물관 혹은 고려인 쉼터로 이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신한촌 기념비에서부터 시작한 역사 답사 일정을 마쳤다. 블라디보스톡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근거지였던 만큼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가이드님이 역사와 관련해서 정말 자세하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셔서 더욱 유익했다. 확실히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안보이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그렇게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니 오래 기억에 남게 되었다.

숙소로 이동하기 전 답사 첫 날 가지 못했던 독수리 전망대에 들렀다. 이 곳에 올라오니 블라디보스톡의 경관이 한 눈에 들어왔다. 특히 전망대에서 보는 금각교의 모습에 이곳의 야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전망대 위쪽에는 키릴문자를 만든 메소 디우스와 키릴 형제의 동상이 있었다. 우리 과 학생들과 관광객뿐 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만큼 경관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일 것 이다. 야경을 보고 싶다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각자 기억의 남는 장소와 이유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과 몇 명이 둘러앉아 쓰는데 기억에 남는 장소가 거의 달랐다. 같은 장소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시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공유해 볼 수 있어서 뜻 깊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방에 돌아가서 누웠는데 벌써 답사를 마친다는 생각에 아쉬워 잠이 오지 않았다.

10월 3일 짧은 2박 3일의 답사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일정은 2개로 많지 않았고, 극 동연방대학교에 방문한 후, 러시아 재래시장을 보고 공항으로 가는 일정이다.

루스키 섬에 위치해있는 극동연방대학교는 극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넓은 캠퍼스라고 한다. 캠퍼스 안에서 해수욕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지 실감이 났다. 날씨가 좋아 교내 셔틀을 타고 기숙사 근처에서 내려 캠퍼스 안을 산책하며 둘러보기로 했다. 학교가 만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걸어 다니는 내내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학교가 섬에 있어서 대부분 기숙사에 살고 시내로 나가려면 바다를 지나야 한다는 고충도 있었다. 이 곳에서 마지막으로 단체사진을 찍기로 했다.



▲ 극동 연방대학교 에서 찍은 단체사진

루스키 섬을 나와 러시아 재래시장에 도착했다. 재래시장의 모습은 처음 갔던 중국 시장과 크게 다른 점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중국인 상인과 중국 음식이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었고 가격도 비슷했다. 블라디보스톡은 대체적으로 한국 대비 물가가 저렴한 편이고 딱히 시장에서 살 만한 특색 있는 상품이 없었고, 공항 면세점도 너무 작아서 돈을 많이 환전해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유명하다는 초콜릿을 몇 개 사고 공항에 가는 버스에 올랐다.

수속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공항을 둘러보기로 했다. 공항에서는 냉동된 해산물과 꿀을 판매하는데 대체로 많은 한국인들이 사간다고 한다. 나는 둘 다 좋아하지 않아서 사지 않았지만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았다.

2박3일의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고, 이번 기회를 통한 경험들은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제 4장

포용의 개념과 관계적 공간

최병두 교수님

I. 서론: ‘포용’ 개념의 등장과 유행

최근 ‘포용’을 수식어로 한 용어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적 지역 발전, 포용적 국토, 포용국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용례에서 포용은 기존의 도시·지역·국토의 개념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새로운 관점이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박인권(2015)은 포용도시를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 비전”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한국의 도시 정책들을 평가·재해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포용도시는 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간)적 배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도시를 전망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포용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하면,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현대 도시,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사회공간적 배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이며, 또한 동시에 이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래 도시의 규범적 모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우리 도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배제의 문제가 기존의 도시 및 성장(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이 문제를 사회경제적 및 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취약집단들(저소득층, 고령층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년층까지 포함)의 생활문제의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변화된 계층들을 포용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포용성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공간적 측면에서 오늘날 도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서민주거의 불안정, 거주지 분리 및 젠트리피케이션, 무분별한 지역개발, 나아가 국토공간의 불균등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소외된 집단들의 포용과 도시 공간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포용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포용/배제의 개념은 학술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했다. 이 용어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편부모 가정, 장애인, 노인, 약물중독자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시되었고, 1980~90년대에는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균열들을 다루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다. 예로, 198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은 사회적 배제/포용을 유럽 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의 핵심 의제로 채택했으며, 1990년대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를 사회경제적 정책과 각종 연구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Aalbers, 2009; 박인권, 2015).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지향하는 포용성장과 이를 도시 차원에 원용한 포용도시의 개념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포용성장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2015), 유엔 하비타트(UN-HABITAT, 2015)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었고, 포용도시는 그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 차원에 반영한 규범적 개념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문정호, 2017).

II. 포용 개념의 유의성과 의문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지난 30여 년 간 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또는 회의적 성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1980년대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시장경쟁 논리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지구적 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한편으로 자본의 초과이윤 전유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흐름 등과 같이 하비(2007)가 지칭한 이른바 '탈취에 의한 축적'이 만연하는 반면, 노동계급의 비정규직화와 실업,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축소 등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포용에 대한 관심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초래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포용성장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초래한 1990년대 워싱턴합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성장모형으로 제시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은행, 유엔 하비타트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정책 아젠다로 명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포용/배제의 개념은 서구 선진국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로 확산되어,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빈곤집단이나 사회적 소외집단들의 주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이 과연 우리 사회와 도시가 직면한 사회공간적 배제의 위기를 해소하고 포용적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용'이라는 단어는 일상적 규범으로 사용되는 진부한 용어를 마치 새로운 수식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포용/배제의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분석 방법이 진부하다면 이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에 바탕을 둔 최근 연구들이나 정책보고서들은 포용이라는 용어를 적당히 규범적으로 정의하고, 우리 사회나 도시가 당면한 배제의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도시를 등급화하거나 도시 문제들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에 다양한 수식어들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나 도시가 처해 있던 사회공간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소하고자 했던 학술적 또는 정책적 시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간 역대 정부들의 정책과 이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고자 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예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의 기능을 (일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마을만들기 등이 핵심적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명박정부로 넘어와서는 저탄소녹색성장과 녹색도시가 정책 기조로 설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창조경제와 창조도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보다 인간의 창조성 또는 창조적 인재의 육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문재인정부에 와서는 아직 국가발전정책 또는 도시정책이나 계획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정한 용어나 개념 또는 정책기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은 분명 포용성장의 기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 기조들이 제시되었고, 정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정당화(또는 비판)하는 개념이나 이론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책 기조를 이루는 핵심 개념들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

와 관련된 현실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관련된 변수들과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정책 기조들에 바탕을 둔 정책들의 시행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들(예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실패)을 자초하거나 매우 편향된 방향(예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무시한 창조경제 정책)으로 나아갔다. 물론 문재인정부는 아직 새로운 국가·도시발전정책의 기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술·규범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포용) 성장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사회공간적 포용의 개념은 학술적·정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포용의 개념, 특히 지리학의 입장에서 포용의 지리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의 개념에 내재한 공간적 측면을 보다 철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용과 배제의 개념은 상호 대립적으로 분리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유발되는 현실적 배경 속에서 경제·정치적 메커니즘들이 작동하는 두 개의 모멘텀(momentum)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포용도시나 포용성장의 개념 등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포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요구된다. 넷째,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실현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관행적인 접근방법(예로 지표개발 중심 연구와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서 나아가 실제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주체적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포용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

1) 포용도시의 개념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함의된 2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용/배제는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포용과 배제는 흔히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상태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 자원(예로, 화폐)의 사용과 관련하여, 포용은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배제는 이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용/

배제의 개념은 단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발생시키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어떤 구체적 사회적 요소의 결핍 상태(예로 빈곤)라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발생시키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110).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즉 빈곤의 사고는 개인이나 가계의 처분에서 자원의 부족을 문제시한다면, 사회적 배제는 불공정한 사회적 참여, 제한된 사회적 통합, 권력의 불균형 또는 결여 등 관계적 이슈에 먼저 관심을 둔다는 점이 강조된다(Room, 1995; 박인권, 2015).

다른 한 측면은 포용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이다. 포용/배제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은 포용도시의 개념 정의에서 우선 확인된다. 예로, 박인권(2015, 114)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도시는 물리적 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지리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기본단위이며,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범위와 중첩된 관계적 실체”라는 점이 강조되며, 이와 같이 “관계적으로 정의된 도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모순적 사회 문제들이 물질화되는 특별한 장소”로 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도시는 역동적이며, 관계적이며, 또한 공간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포용도시의 변수 또는 지표의 설정에서 사회적 의존성 및 참여와 더불어 공간적 접근성이 3대 핵심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박인권, 2015). 또한 포용도시에 관한 하비타트 3차회의의 정책의제도 같은 맥락에서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참여 확대와 사회적 혁신, 모든 사람이 양질의 기초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증진, 포용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UN-HABITAT, 2015). 또한 세계은행도 포용성장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포용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면서(World Bank, 2009; 2015), 포용의 차원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1).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은 공간적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의 균등한 접근성 향상이나 도시 빈민에 대한 기본서비스의 제공 및 공적 공간의 복원 등을 핵심 의제로 포함한다.

<표 1> 포용도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차원	핵심과제	주요 세부내용	
공간적 포용	접근: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토지, 주거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 적절한 토지·주거 - 도시빈민에 대한 기본 서비스 - 도시계획과 관리 - 공적공간의 복원	- 슬럼 개조 및 방지 - 임대 보증 - 토지 및 토지사용 조정 - 토지사용 규제 - 토지기반 금융
사회적 포용	권리와 참여: 개인과 집단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향상	- 범죄 및 폭력 방지 - 권리 기반적 접근 - 도시빈민 조직 지원	- 공동체 주도적 발전 - 참여 계획 및 거버넌스
경제적 포용	기회: 모든 사람이 번영의 증대에 기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일자리에 대한 공간적 접근 향상 - 제도적 접근 향상	- 기능 함양, 교육 접근 - 친빈곤 경제 발전 - 금융에의 접근

자료: World Bank(2015, 13)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에 내포된 공간적 의미들은 흔히 특정한 규모의 공동체(예로 이웃사회, 도시, 국가 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로 카메론(Cameron, 2005)은 포용의 지리학을 개념화하면서, 흔히 사회적 배제는 주로 공동체나 이웃사회와 같이 ‘국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사회적 포용은 특정한 공간적 차원이나 입지와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배제와 포용은 모두 특정한 지리적 또는 공간적 규모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용도시의 개념은 분명 그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지리적 범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또한 단어의 의미로 보면, 배제/포용은 특정 사회공간적 집단이나 공동체의 영역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또한 참여한다(내포된다)는 점에서 분명 규모적 또는 (엄격히 말해) 영역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영역적 측면에서 개념화된 배제/포용의 공간성은 이에 내재된 관계성과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배제는 특정한 사회공간적 영역으로부터 거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부터 제외를 의미한다. 즉 배제와 포용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들은 공간적 측면에서 영역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관계적 공간 대 영역적 공간

사실 최근 관계적 공간(또는 지역)의 개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학자들과 영역적 측면을 다시 강조하려는 학자들 간

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Varró and Legendijk, 2013 등 참조). 관계적 공간의 개념은 지구적 이동성과 상호연계성의 증대 등 현실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구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망 또는 관계적 연계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공간적 편성들은 더 이상 장소에 고정되거나 영역적이지 아니하며, 다양한 순환적, 관계적 실체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영역적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에서의 전환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MacLeod and Jones, 2007, 1179). 하지만, 관계적 관점에서 공간이나 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현실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지역적 차이나 특이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왜 발생하거나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어렵게 된다(Jones, 2009).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도 개별 국가들은 상호의존성이나 관계성을 증대시키고 다규모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영역에 기반을 둔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적 전환'은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 논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맥케인과 와드(McCann and Ward, 2010)는 지역 정책은 관계적이며 또한 동시에 영역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문제는 관계적 접근과 영역적 접근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의문으로 귀결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접근들 간의 구분과 논쟁은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Jonas, 2012).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간적 관계성에 관한 대안적 논의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즉 네트워크 또는 관계성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사회공간적 관계들의 다른 형태들, 예로 영역, 장소, 스케일 등을 무시하고, 공간을 한 차원으로만 이해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습(Jessop et al., 2008)은 4가지 형태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즉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한 4가지 형태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은 공간에 대한 영역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를 결합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를 수직적 스케일 차원(국지적-지역적-국가적-지구적 스케일)뿐만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 차원(지구적 연계를 포함하는 지역 또는 장소들 간 관계 및 차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하겠다(박배균, 2012).

그러나 공간에 관한 영역적/관계적 관점에 관한 이러한 결합은 공간의 외형적(형태적) 접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즉 이와 같은 결합은 관계적 공간(또는 영역적 공간)의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오래전 애그뉴(Agnew, 1999, 93)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관련된 장소나 공간, 지역에 관한 많은 논의들에서 철학적 혼돈만 무성하다고 주장한 바 있

다. 그러나 그 동안 지리학에서 공간에 관해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적 공간의 개념화에서 외형적인 혼돈이 심층적인 사유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에 관한 논의 모두가 이러한 혼돈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예로 매시(Massey, 1979)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초기에 공간(장소와 지역)은 국지화된 사회적 관계 및 물질적 조건들과 거시적인 자본주의적 재구조화 과정 간 상호작용의 조합 또는 개연적 결과로 이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공간에 관한 매시의 주장은 보다 철학적인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예로, 그녀는 “공간은 공존의 영역으로, 궤적의 다중성을 포괄하며, 이전에는 관련되지 않았던 주체와 객체, 사람과 사물들을 포함하며, 이들이 서로 접촉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Massey, 2005). 포용의 지리학을 위한 공간적 철학은 바로 이러한 공간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 즉 공존의 공간, 접촉과 관계의 공간을 개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관계적 공간과 사물의 사회공간적 질서

1) 관계적 공간의 재인식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포용/배제의 지리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초의 지리학적 물음은 포용과 배제가 미분화된 상태였을 것이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수렵과 채취를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낯선 주변을 둘러보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던 물음은 ‘여기는 어딘가?’라는 의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정착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온 삶의 체험을 통해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곳, ‘저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저기’는 새로운 지리학적 물음에 답하기 위한 대상, 즉 물음의 주체와는 분리된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서 공간(즉 절대적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스-로마시대의 지리학에서부터 근대의 지리학에 이르기까지 지리학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의 지리학으로 발달해 왔고, 실증주의적 지리학은 이러한 발달의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절대적 공간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신지역지리학은 ‘여기’와 ‘저기’를 관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학적 물음의 변화는 공간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 일정한 영토를 가진 고대 국가의 등장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침략과 식민지배에 바탕을 두었다. 공간은 더 이상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이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되었다. 국가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는 경계는 특정 영역에의 소속을 좌우하는 포용/배제의 구획선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는 국가 주권의 지배력 하에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되었고, 형식적인 포용(소속)과 배제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공간에서 원료나 상품의 지리적 이동은 점차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었지만, 공간 자체의 생산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면서 점점 더 상품화·물신화되면서 일상생활로부터 소원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구지방화 과정은 국경의 제도적 이완과 더불어 상품과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촉진하며, 공간의 다규모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국민국가와 그 영토성에 근거를 둔 기존 방법론들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으며,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의 전환, 즉 관계적 전환과 더불어 네트워크, 스케일 등의 새로운 공간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증주의적 지리학과 절대적 공간관에 대해 가장 앞서 비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지리학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비이다. 그는 공간을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계적 공간으로 구분한다(Harvey, 1973; Harvey, 2009). 절대적 공간은 사물과 분리된 공간 그 자체, 상대적 공간은 사물의 개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 그리고 관계적 공간은 사물들이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이들 간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공간은 이렇게 유형화되어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총체로서 존재하며, 공간을 어떤 관점에서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에 관한 인간의 실천에 좌우된다(Harvey, 1973, 13). 하비는 다양한 인간 실천 유형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3가지 공간 개념과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3차원적 유형화, 즉 물질적 공간(경험적 공간), 공간의 재현(개념화된 공간), 재현의 공간(체현의 공간)과 행렬적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하비의 이러한 공간 유형화는 절대적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의 공간관으로 사람들의 공간적 활동이나 사물들의 공간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는 공간을 사람과 사물의 사회공간적 활동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또는 관점)로 이해할 따름이고, 관계적 공간 개념에 내재하는 심원한 철학적 함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¹⁾

1) 하비(Harvey, 2009)는 이러한 공간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절대적, 상대적 또는 관계적 준거틀의 선택을 위한 정당성을 간단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3가지 개념들이 상호변증법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항상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적 공간 개념을 이와 같은 공간의 유형화에 따른 관점 또는 준거틀로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 개념 자체 내에 함의된 보다 철학적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지리학뿐 아니라 사회이론 및 인문학에서 2가지 전환, 즉 관계적 전환과 공간적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분명 이들 간에 어떤 내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크랭과 스리프트(2013)는 ‘공간적 전환’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이론가와 철학자들을 논의하면서, 이들이 주목한 공간의 개념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사회적,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예로, 들뢰즈의 철학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특히 지리학적 철학이라는 점에서 ‘지철학’(geophilosophy)이라고 칭해진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공간화’ 없이 사유할 수 없으며, ‘사유하기’ 없이 공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엘, 2013). 이러한 지철학적 사유는 예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서, <천개의 고원>에서 빈번하게 출현한다. 예로 이들이 제시한 관계적 공간 메타포는 땅 속 줄기를 지칭하는 ‘리좀’의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리좀의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나 뿌리와는 전혀 다르다”(들뢰즈와 가타리, 2004, 12). 또한 이들이 제시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개념은 영역성의 개념과 관계성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관계적 전환과 공간적 전환을 함께 부각시킨 사회이론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을 들 수 있다(최병두, 2015b). 이 이론의 주장자인 라투르에 의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비인간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어주는 네트워크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우리가 모든 관계를 네트워크로 정의할 때 겪는 어려움은 지리학의 보급 탓”이라고 비판한다. 즉 유클리드적 공간관에 기초한 “지리학적 개념은 단지 거리와 규모를 정의하는 격자에 대한 또 다른 연결일 뿐이다. [그러나 위상학적 관계적 공간관에 근거한] 네트워크 개념은 우리가 공간을 정의하는 데서 지리학자들의 횡포를 걷어내는 것을 돕고, 우리에게 사회적이거나 ‘실제’의 공간이라는 관념이 아닌 관계라는 관념을 제공한다”(라투르, 2010, 102-103). 이러한 점에서 머독(Murdoch, 1998)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유클리드주의에 대한 전쟁 기계’라고 지칭하면서, 이 이론이 가지는 핵심적 유의성을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이 이론은 지리학적 연구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사회, 행동/구조, 국지적/지구적인 것과 같은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적 사고를 제공한다. 둘째, 이 이론은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유클리드적 공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 개념을 제시한다.

2) 사물의 사회공간적 질서

이와 같은 관계적 공간에 관한 철학적 사유나 이론적 개념화는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공간의식을 지배해 온 절대적, 비공간적(특히 시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관계적이고 공간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사물의 존재와 공간에 관한 서구적 의식과 동양적 사고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신영복(2004, 24)의 동양 철학적 강독에 의하면, 서구사회의 사회론은 원자론적 존재론에 따른 세계 인식을 전제하고 개별 존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면, 동양적 사고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동양의 이러한 관계론적 구성원리는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적 존재론과 이에 내재한 관계적 공간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물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실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공간은 사물들이 그 실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관계를 통해 형성·변화한다.

관계적 공간에 관한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사물의 질서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서구 사회에서 관계적 공간에 기반한 사물의 질서에 관한 논의는 라이프니츠에서 화이트헤드로 이어진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공간은 사물과 시간과의 상호작용이나 또는 사물들 간의 상호작용 없이는 인지될 수 없으며, 사물들의 질서가 바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임진아, 2014, 185). 그러나 세계의 실체를 정신의 원자인 ‘모나드’로 파악하는 그의 모나드 개념은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과는 모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도 공간은 사물들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의미관련’적 개념이다. 임진아(2014, 179)의 해석에 의하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의미관련은 물질과 (시)공간이 상호 독립적이고 무목적적인 주체-객체라는 이원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물질과 (시)공간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하비(Harvey, 2009)의 설명에 의하면, 화이트헤드는 “사고의 근본적 질서는 우선 관계를 가진 사물들의 세계이며, 그 다음으로 공간인데, 공간은 이 관계를 통해 그 근본적 실체가 규정되며 이 관계의 본질로부터 그 속성이 유도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관계적 공간 개념에 내재된 사물의 사회공간적 질서에 관한 사유는 철학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관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들의 관계로서 질서 또는 혼란은 절대적(영역적) 공간뿐 아니라 관계적(위상적) 공간에서 표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로, 방에 있는 책장에 꽂이지 않은 채 흩어져 있는 책들이나 도시에서 보행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자동차나 장애물들은 그 방이나 도시가 무질서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책들을 책장에 꽂는 것, 보행도로를 보행자들에 내어주는 것과 같이 사물들 간 관계성을 복원하는 것은 그 방이나 도시의 사회공간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사물들의 사회공간적 질서란 사물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 '풍경'은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한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돌아오는] 풍경”

사물들 간의 관계성과 이에 따른 '제자리'는 사물들 자체에 고유하게 내재하거나 또는 선형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포용은 이러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철학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물들 간 관계성과 이에 따른 '제자리'는 특정 지배집단이나 사회구조적 조건(예로 자본주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규정된 관계성이나 '제자리'는 진정성(또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다. 진정한 포용이란 단순히 타자에 대한 외형적 배려(또는 관용)가 아니라 상호인정을 통해 존재론적 안정감을 구축하고 나아가 사물들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포용의 지리학에서 포용은 사물(사람 포함)들 간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포용의 공간은 임의적인 사회적 통합의 공간이라기보다 상호인정(투쟁)을 통한 조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사물들의 '제자리 풍경'이라는 메타포로 표현된다. 포용의 지리학은 사물의 공간적 질서 회복과 존재적 관계성의 복원을 지향해야 한다.

V. 맺음말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지향적 기업주의 정부(중앙 및 지방) 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공간적 포용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지리학은 새로운 학술적, 정책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의 개념 또는 패러다임일지라도, 앞선 다른 다양한 규범적 개념들이나 정책기조들(예로 녹색도시, 창조도시 등)들처럼 외형적으로는 규범적 담론을 확산시키면서도 실제로 기존의 지배적 사회공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에 내재된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단순히 공간의 형태적 유형화에서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라투르(홍성욱 역), 2010,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관하여: 약간의 해명,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이음, 95-124 (Latour, B., 1997, On actor-network theory: a few clarifications plus more than a few c o m p l i c a t i o n s , <http://www.cours.fse.ulaval.ca/edd-65804/latour-clarifications.pdf>.)
- 문정호, 2017, "포용도시 등장 배경과 의미, 도시문제," 582, 22-25.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 신영복, 2004,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돌베개.
- 임진아, 2014, "화이트헤드의 관계적 공간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화이트헤드 연구, 28, 155-193.
- 크랭·스리프트 편(최병두 역), 2013, 공간적 사유, 에코 리브로 (Crang, M. and Thrift, N. (eds), Thinking Space, Routledge, London).
- 하비, 데이비드(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한울(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 Press).
- Aalbers, M. B., 2009, Social exclusion, in R. Hutchison (ed.). Encyclopedia of Urban Studies. Sage Publications, 731 ~ 735.
- Cameron, A., 2005,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initial report, Progress in

제 5장 . 지리 관련 핫 이슈

1. ‘불의 고리’ 인도네시아 한밤중 쓰나미…최소 222명 숨져
2. [앵커&리포트] ‘관세폭탄’ vs ‘보복관세’…G2 무역전쟁, 세계 경제 출렁

‘불의 고리’ 인도네시아 한밤중 쓰나미...최소 222명 숨져



3m 높이의 쓰나미로 건물 수십 채가 무너지고 해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됐다. 탄중르송 해변 콘서트장에선 록밴드 공연 중 베이스 연주자와 관객 등 7명이 쓰나미에 휩쓸려 숨졌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수십 명이 인근 지역을 여행 중이었지만 모두 안전한 지대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국인 관광객 7명이 승용차를 이용해 수도 자카르타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22일 밤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인근 해협의 집들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자재난방지청 대변인 트위터 갈무리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화산 분화로 인한 해저 산사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저 산사태는 바닷속 경사가 급한 곳에서 불안정하게 쌓인 퇴적층이 무너지면서 발생한다. 이날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발생한 진동과 용암이 화산섬 주변 퇴적층을 무너뜨려 해저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만조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라 쓰나미의 위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22일 오후 5시22분께 1500m 상공까지 화산재를 뿜어 올리는 등 하루 동안 4차례 분화했다.

이번에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순다해협은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 발생한 지역이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생성되기 전 존재한 크라카타우 화산이 1883년 대폭발로 3만 6000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당시 폭발 소리와 지진 여파가 4000km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감지됐고, 분출된 화산재가 인근 80만㎢ 지역을 뒤덮었다. 크라카타우 화산은 폭발로 소멸했고, 1928년 새로 생성된 화산추가 아낙 크라카타우(작은 크라카타우)로 불리고 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8월에 휴양지 롬복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으로 560여명이 사망했다. 9월엔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술라웨시섬을 강타해 2200여명이 숨졌다.

2018-12-23

한겨레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앵커&리포트] ‘관세폭탄’ vs ‘보복관세’…G2 무역전쟁, 세계 경제 출렁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3일)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 조치의 명칭은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행정명령"입니다. 중국의 수출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무역 전쟁을 선포한 셈이죠. 이에 대해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수입품 3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5에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세계 양대 강국이 이처럼 상대국을 향해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무역대표부는 보름안에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겠다는 관세는 백25억 달러, 약 13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의 연간 대중 무역적자인 3천7백억 달러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 행정명령은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첫 번째 조치일 뿐입니다."]

표적 상품의 종류만 천 3백 가지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 조치는 미국을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중국도 곧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철강과 돼지고기 등 3조 2천억 원 어치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이텐카이/주미 중국대사 : "중국은 결코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는 우려감에 뉴욕과 상하이, 도쿄, 홍콩 등의 증시 낙폭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도 오늘(23일) 하루 3.18%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2018-03-23

이재원기자 (ljw@kbs.co.kr)

편집후기

15학번 김선규 - 지구마을을 통해 신입생들은 설렘을 가득 안고 우리 과를 바라볼 수 있고 재학생은 지나온 한 해에 대한 결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구마을은 특성상 선후배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편찬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더 다양하고 색다른 소식들로 우리 지구마을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15학번 박사무엘 - 이번 지구마을 제작에 임하면서 우리 과에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종합답사를 비롯한 각 학년 답사들에 대한 답사 후기가 매우 자세하고 재미있어서 다른 학우님들도 자신들이 나중에 가게 될 답사지에 대해서 재미있고 흥미있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과 만의 특징인 지구마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 더욱 우리 지리교육과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지구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18학번 홍대기 - 제가 이번 편집부에 새로 들어오게 돼서 지구마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18학번 학우들의 소개를 담당하여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막했지만, 다들 선뜻 나서서 재치 있고 재미있게 써주어서 제작하는데 즐거웠고, 자기소개를 받으면서 연락이 뚫렸던 학우들과도 연락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제작이었습니다.